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1년도 제1차 회의

1. 일 자 2011년 1월 6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호 —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2011년 중 가계대출 전망은 입주물량의 큰 폭 감소 등 주택담보대출 여건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문의 채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현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대형은행 외에 여타 은행이나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상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 별첨 >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별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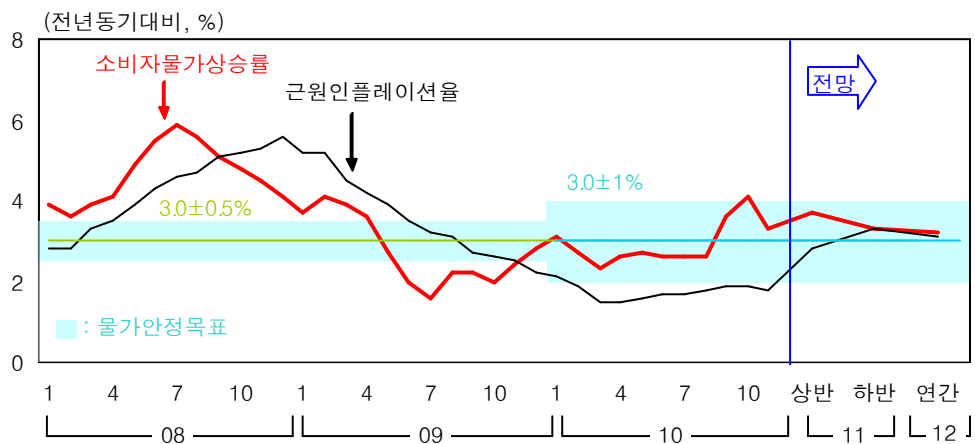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I.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물가안정목표

- ☐ 2010~12년 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 \pm 1\%$ 로 설정
- ☐ 이에 따라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의 중심선에서 안정 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필요

물가안정목표



2. 경제 · 금융 여건

가. 세계경제

- ◆ 2011년 중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국제금융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나 위험요인도 상존

-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성장 격차가 지속되겠으나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대 초반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
- 국제금융시장도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유로지역 재정문제 등이 계속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나.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제는 성장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전망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기조를 이어갈 전망
-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중심치를 상회하는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
 -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수요압력이 확대되고 국제원자재가격, 임금, 집세 등이 상승하는 데 기인

경제 전망

| | 2009 | 2010 ^{e)} | (전년동기대비, %) | | |
|-----------|------|--------------------|-------------|-----|-----|
| | | | 상반 | 하반 | 연간 |
| GDP 성장률 | 0.2 | 6.1 | 3.8 | 5.0 | 4.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 2.9 | 3.7 | 3.3 | 3.5 |

자료: 한국은행 2011년 경제전망(10.12.10일 발표)

다. 국내 금융·외환시장

- ◆ 시장금리는 경기요인과 외국인 투자동향 등 수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은행대출 증가폭은 전년수준을 상회할 전망

□ 시장금리는 경기상승기조, 물가상승압력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

○ 다만 국내외 경제지표 동향, 기준금리 인상기대,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및 외국인 투자동향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지속 등으로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

□ 은행대출은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 증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다만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도 및 업종별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라. 재정

- ◆ 재정적자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

□ 2011년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2010년도 예산대비 5.5% 증가

○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축소(2010년 -2.7% → 2011년 -2.0%, GDP대비)

II.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
-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개선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힘쓰는 한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

- 기준금리는 우리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 등에도 유의
 - 시중유동성 및 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 주요국 경기, 유로지역 재정문제 영향 등 세계경제의 상·하방 위험요인의 추이를 보아가며 금융완화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

2.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개시장조작 수단의 개선 등을 통하여 유동성 조절 능력을 제고
 - 2010년 도입한 입찰방식 통화안정계정의 활용 확대
-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의 환수 노력 지속

-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대한 당행 지원자금의 회수 노력을 지속
- 총액한도대출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과 제고
- 지역본부별 한도 등 당행 지원자금의 활용현황 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
- 글로벌 금융·경제 환경 변화 등이 통화정책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처방안을 모색
- IMF 등 국제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공동연구 추진

3.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시그널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 신속하고 정확한 영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한층 강화
- 연 2회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계속 보강

4. 금융안정 노력 강화

-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감시 기능을 강화
- 가계부문 채무상황,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요인, 외국자본 유출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

- 공동검사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중대형은행 및 잠재적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 금융안정지표의 개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선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평가의 정도를 제고
- 금융안정 관련 정부·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정착 노력을 강화

□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

-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강화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금융안정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의 정착을 추진

-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가 2011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증권사에 대한 일종유동성 간접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